

# 한국어 $\bar{X}$ Syntax 試論<sup>1)</sup>

朴 秉 洙

지난 사오년간 변형생성이론은 크게 수정되고 발전되었다.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이 정립되면서 그 이전의 이론모형에 바탕을 둔 모든 통사분석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어 통사분석은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걸쳐 변형생성이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활발하고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통사분석은 대체로 표준이론(Standard Theory) 또는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진폭적으로 수정내지는 재검토 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종전의 분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Jackendoff(1977)의  $\bar{X}$  Syntax를 적용하여 한국어 동사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에 대한 검토로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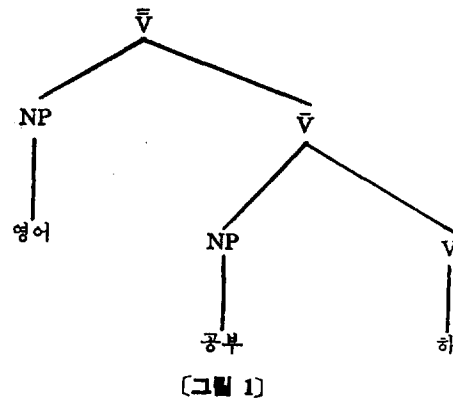
- (1) 아이를 물다.
- (2) 공부를 하다.

(1)과 (2)는 둘다 「명사+동사」의 연결이며 명사는 직접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고 동사는 타동사인 점에서 (1)과 (2)가 같은 구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과 (2)는 다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는 직접목적어를 또 하나 더 가질 수 있지만 (1)은 그렇게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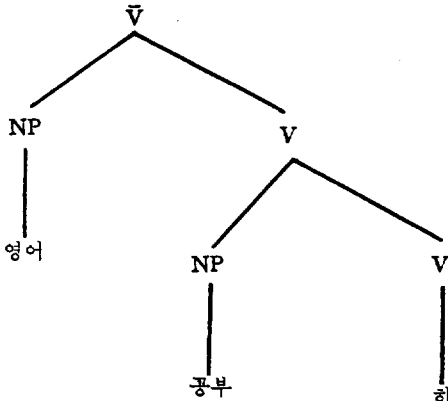
- (3)\*개를 아이를 물다.
- (4)영어를 공부를 하다.

그러니까 ‘공부’와 ‘하다’가 결합하여 타동사물 이루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타동사의 내부 구조가 다시 「직접목적어+타동사」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필자는 Park(1981)에서  $\bar{V}$ 가 NP(‘공부’)와 V(‘하다’)를 지배하고 이  $\bar{V}$ 가 다시 NP(‘영어’)를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오른쪽 그림 1이 그것을 나타낸다.

필자는 여기서 이를 수정하여, ‘공부하다, 파피 하다, 건설하다, 일하다’ 따위의 동사들은 Jack-



1) 이 논문은 한국언어학회 1982년도 가을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연구발표에서 이기용 교수가 한재현(1981)의 조동사 처리방법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논문의 수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그의 지적에 감사한다.



[그림 2]

endoff(1977)가 말하는 **deverbalizing rules**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다음의 규칙으로 생성된다.

(5)  $V \rightarrow NP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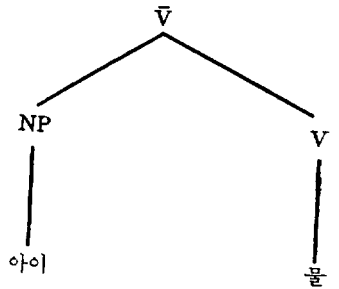
이 규칙은 예컨대 동사표현 '공부하(다)'는 명사 '공부'와 동사 '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졌다고 보는 형태론적 사실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규칙 (5)를 받아들이면 그림 1은 왼쪽 그림 2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다)'도 V이고 '공부하(다)'도 V이어서 Chomsky(1981)의 의미에서 이들이 자기 **case assigner**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case assigner**가 V일 수도 있고 V-bar일 수도 있어 이것이 약점이다.)

문장 (1) '아이를 물다'의 구조는 그림 3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림 3이나 그림 2는 온전한 문장의 구조가 아니다. 왜냐면 동사 '물다'는 적어도 두 개의 NP를 요구하는 어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림 3에는 NP가 하나뿐이다. 그래서 어휘적 속성을 제대로 갖춘 문장이 되려면 아래처럼 문장 (6)과 (7)로 될 것이고 그것의 구조를 각각 그림 8과 그림 9로 나타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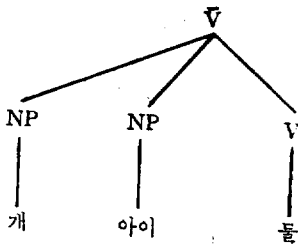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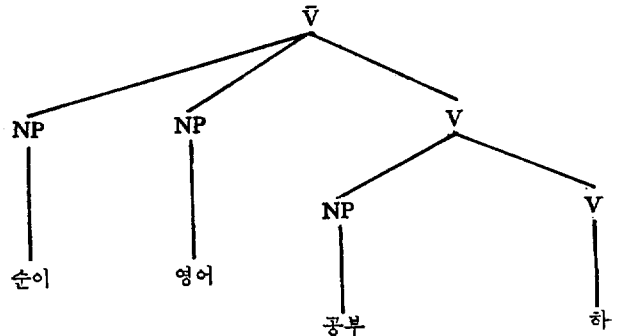
(6) 개가 아이를 물다.

(7) 순이가 영어를 공부물 하다.

그림 8의 구조는 동사 '물(다)'가 두 개의 NP를 요구하며 그중 하나에는 주격을 부여하고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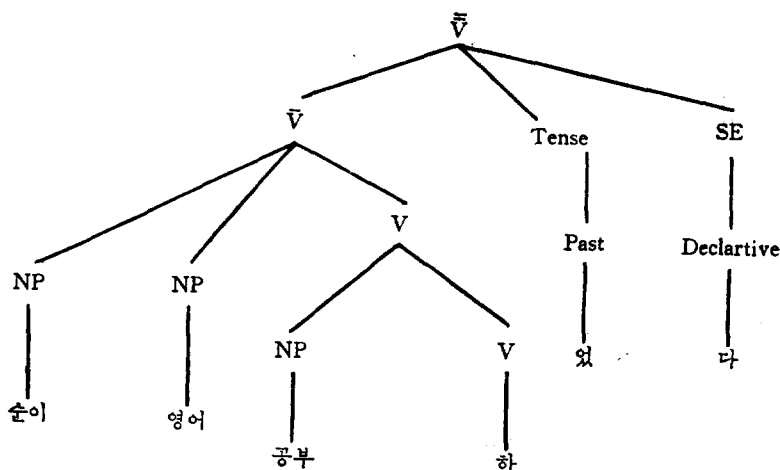


[그림 9]

2) Deverbalizing rules에 대해서는 Jackendoff(1977) §3.6 및 ch.9 참조. 이러한 규칙은 어떤 의미에서 word formation rules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Jackendoff는 동사가 다른 범주로 바뀌는 현상을 이 규칙으로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동사가 다른 요소와 더불어 다른 범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사로 남는 현상을 이 규칙으로 다루었다. 이것은 그의 Comp를 도입하는 규칙인  $V''' \rightarrow \text{Comp } V'''$ 과 형식상 비슷한 점이 있다. 어쨌든 규칙(5)는 중전의 VP확장규칙과는 전혀 다른 규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 상술함.

다른 하나에는 목적격을 부여하는 그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문장(6) 외에도 '개를 아이가 물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9의 구조도 (7)은 물론 '\*순이를 영어가 공부를 하다'라는 잘못된 문장의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문을 통사적으로는 well-formed이나 의미적으로 ill-formed로 보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첫째 Chomsky(1981)의 투영원리(projection principle), 즉 통사구조의 표현(representations)은 어휘부(lexicon)에서 투영된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둘째로는 한국어의 비구성언어적(非構成言語; non-configurational language)<sup>3)</sup>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그림 8과 그림 9의 구조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시제, 시상, 문장종결사(sentence endings)등만 추가하면 된다. 가령 (7)을 과거시제로 고쳐 "순이가 영어를 공부(를) 하였다"를 예로 들어 그 심층구조(D-Structure)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림 10]

지금까지 적용된 주요 phrase structure rules은 아래와 같다.

(8)  $\bar{V} \rightarrow \bar{V}$  Tense SE

(9)  $\bar{V} \rightarrow NP^* V$

(10) (= (5))  $V \rightarrow NP V$

Jackendoff(1977)은 X Syntax의 기본원칙으로 Uniform Three-Level의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각 어휘범주 X는  $\bar{X}$ ,  $\bar{X}$ , 및  $\bar{X}$ 의 세 개의 상위범주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한국어 phrase structure rules에는 V의 상위범주가  $\bar{V}$ 와  $\bar{V}$  둘 뿐이다. 이는 한국어가 비구성언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의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보여진다. 비구성언어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VP(직접목적어, 부사류등을 직접 지배하는 phrasal category)가 필요 없으므로, 그것을 버리고 나면 V의 maximal projection은  $\bar{V}$ 에 머문다고 말할

3) Chomsky가 말하는 비구성언어(non-configurational language)란 주어, 목적어등의 문장 안에서의 통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phrase marker의 구성(configuration)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언어를 이룸인데 한국어가 그 전형적 예이다.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 영어와 같은 구성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의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phrase marker의 구성에 의하여 정확히 장의될 수 있다.

수 있다.

다음은 규칙(10)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이 규칙은 Jackendoff의 *deverbalizing rule*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정한 규칙이다. *deverbalizing rule*이란 동명사와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동사가 다른 범주 즉 명사로 바뀌는 현상을 다루는 규칙이다. Jackendoff는 이 규칙을  $\bar{N} \rightarrow \text{ing} \bar{V}$ 로 나타내면서 이것은  $\bar{X}$  Syntax의 기본전제인  $X^n \rightarrow \dots X^{n-1} \dots$ 의 형식에 맞지 않는 예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bar{X}$ 가 화살표 왼쪽이면 그 오른쪽에는  $\bar{X}$ 가 오는 것이 원칙이나 이 *deverbalizing rule*에는 양쪽에 같은 수준의 범주  $\bar{N}$ 와  $\bar{V}$ 가 있다. 이 규칙은 대등접속사(*and* 또는 *but*)를 다루는 규칙(즉,  $X^n \rightarrow X^n \text{ conj } X^n$ )과 더불어  $\bar{X}$  convention에 예외가 되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규칙 중의 하나라고 Jackendoff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Jackendoff는 *that* 등의 *complementizer*를 도입하는 규칙도 일종의 *deverbalizing rule*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11)이 그가 제시하는 규칙이다.

$$(11) \bar{V}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that} \\ \text{than} \\ \text{as} \\ \text{wh} \end{array} \right\} \bar{V}$$

그러니까 그는 *that* 등의 *complementizer*를 일종의 접사(*affix*)로 보고 *-ing* 또는 *-en* 등과 같은 수준의 요소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든  $\bar{N} \rightarrow \text{ing} \bar{V}$ 와 비교해 보라.) 또 화살표 양쪽에 같은  $\bar{V}$ 가 나타나 있는 것도 이 규칙의 특이한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규칙 (10) ( $V \rightarrow NP V$ )은 (11)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화살표 양쪽에  $V$ 가 있을 뿐만 아니라  $NP$ 를 일종의 접사 또는 *grammatical formative*로 분석한 점이 (11)과 흡사하다. (11)이 사실은 동사를 동사 아닌 다른 범주로 바꾸는 동명사 규칙과 같은 *deverbalizing rule*이 아니면서도 형식상 *deverbalizing rule*인 것과 같이, 규칙(10)도  $V$ 가  $NP$ 를 취하여도 여전히  $V$ 가 되어 *deverbalize*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verbalize*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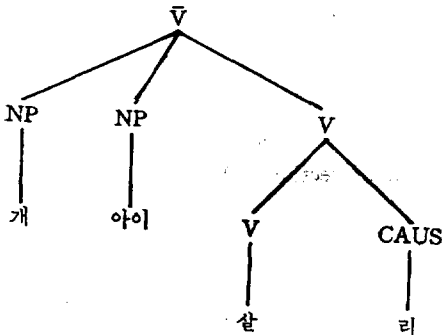
필자는 한국어 사동문과 피동문 현상도 규칙 (10)의 *rule schemata*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하여 규칙 (14)를 추가해야 한다.

(12) 개가 아이를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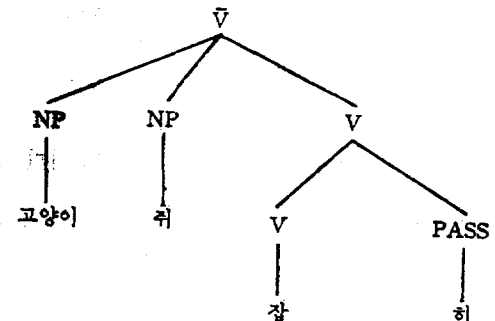
(13)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14) V \rightarrow V \left\{ \begin{array}{l} \text{CAUS} \\ \text{PASS} \end{array} \right\}$$

그러면 (12)와 (13)의 심층구조는 각각 그림 11과 12로 표현된다(Tense와 SE는 생략).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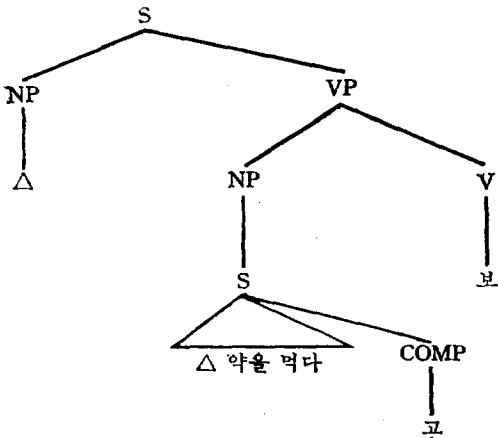


[그림 12]

사동문의 경우 두 개의 NP가 요구되고 둘 중 하나에는 주격이 부여되고 다른 하나에는 목적격(accusative)이 부여되는 것은 CAUSATIVE FORMATIVE인 ‘이, (리)’의 어휘적 속성에 의하여 그와같이 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피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ASSIVE FORMATIVE ‘히’가 NP를 하위범주화하고(subcategorize) 격을 부여한다. 어휘부문(Lexicon)에 ‘이, 리’와 ‘히’가 수록되고 그 어휘적 속성이 각기 상술되며 사동문과 피동문의 심층구조에 이들이 처음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동변형규칙이나 피동변형규칙은 한국어 통사론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피동문에 있어 ‘히’가 모든 타동사에 다 규칙적으로 붙는 것도 아니므로 어차피 종전의 피동문규칙은 예외가 많은 임시방편의 규칙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없애고 ‘히’가 나타나는 피동문의 구조는 어휘 ‘히’의 투영이라고 본다고 해서 잃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sup>4)</sup> 사동문의 경우에도 종전의 상승규칙(Raising)이나 동일명사삭제규칙(Equi)등 부자연스런 조작을 모두 버릴 수 있어 위에서 제시한 사동문 분석이 종전의 분석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 보다”와 “~고 싶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림 13〉

한 Equi나 SE탈락규칙 등은 없어지게 된다. (15) 및 (16)과 같은 Auxiliary가 있는 문장을 생성하는 데 다음 규칙이 필요하다.

(17)  $\bar{V} \rightarrow \bar{V} \text{ Aux}$

이 규칙과 앞의 규칙들을 적용하면 (15)의 심층구조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먹어 보다’의 ‘어’는 일종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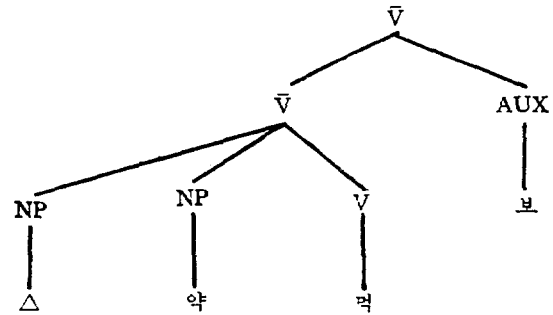
(15) 약을 먹어 본다.

(16) 약을 먹고 싶다.

이들 표현을 위하여 종전에는 대개 “싶다” “보다”를 주동사로 보고 그것이 sentential complement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령 (15)는 왼쪽과 같은 구조에서 도출되었다.

Equi에 의하여 complement sentence의 주어가 삭제되고 또 complement sentence의 SE ‘다’ 등을 탈락시키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와 “싶다” 따위를 일종의 조동사로 보는 전통문법적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이것이 X Syntax에 더 잘 부합하는 것 같다. 이들 동사들을 조동사로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말



〈그림 14〉

4) ‘도시가 건설된다’든지 ‘도시가 파괴 당한다’와 같은 문장도 필자는 이것이 능동문에서 도출된다고 보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부터 ‘된다’와 ‘당한다’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가]NP [[건설(이)]NP [되]v]v 다v, [[도시가]NP [[파괴(를)]NP [당하]v]v ㉠다]v.

사(linking element)로 보고 변형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 점 또한 종전의 분석과 크게 다른 점이며 특히 필자((Park 1972))의 견해와 다르다. 거기에서는 ‘-어’ ‘-고’ 등을 complementizer로 보고 이들을 모두 심층구조에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주된 이유는 “-어”와 “-고”가 의미를 달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 때문이었다.

- (18) a. 가 있다. (‘-어’의 경우)  
 b. 가고 있다. (‘-고’의 경우)

(18a)와 (18b)는 분명히 뜻이 다르고, 그 의미 차이의 원인이 ‘-어’와 ‘-고’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와 ‘-고’는 심층구조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 논지였다. 그러나 (18a)와 (18b)의 의미 차이가 동사 ‘있다’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면 ‘-어’와 ‘-고’가 꼭 심층구조에 나타나야 한다고 분석할 필요는 없다. 즉 (18a)의 ‘있다’와 (18b)의 ‘있다’는 같은 어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자는 존재 또는 상태를 뜻하는 조동사이고 후자는 진행을 뜻하는 조동사이며, 전자는 연결사로서 ‘-어’를, 후자는 ‘-고’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니면 대안으로 (18a)의 ‘-아’는 단순히 ‘-어서’의 줄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때도 역시 ‘있다’는 존재를 뜻하는 조동사가 될 것이다.

종전의 분석((그림 13))과 여기서 필자가 제시하는 분석((그림 14))과의 근본적 차이는 ‘-어’와 ‘-고’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15), (16), (18b)과 같은 문장을 complex sentence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차이에 있다. 필자는 이제 ‘-보다’ ‘-싶다’ 또는 ‘-있다’ 등이 나오는 위와 같은 문장들을 simple sentence로 다루려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견해가 X Syntax에 자연스럽게 수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Phrase structure rule (17)은 반복(recursion)을 허용하는 규칙이다. 하나의 동사 뒤에 Aux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조동사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길게 반복될 수는 있다.

- (19) 먹어 보고 싶어 하고 있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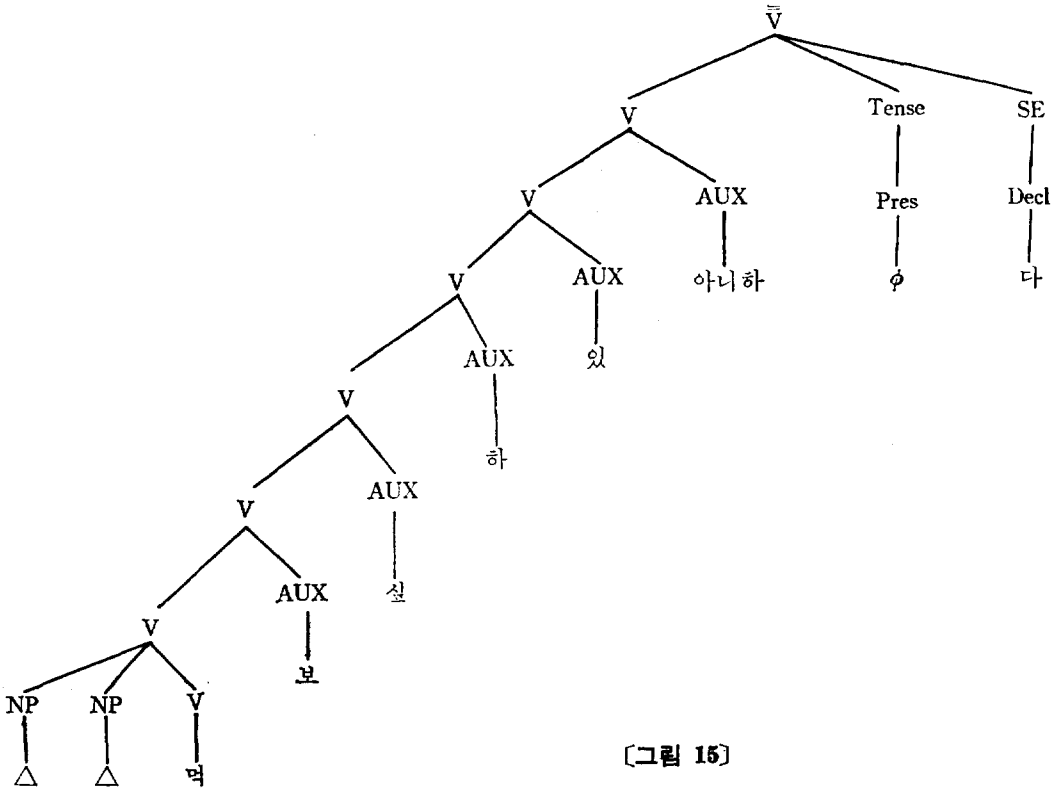
여기서 동사 ‘먹(다)’에 ‘-보다’ ‘-싶다’ ‘-하다’ ‘-있다’ ‘아니하다’ 등 다섯개의 Aux가 첨가되어 있다고 본다. (19)의 심층구조를 그림 (15)와 같이 본다.

그런데 만약 ‘아니하다’를 조동사로 위와 같이 다루는 것이 옳다면 ‘...아니하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하였다’ 따위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한 반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부정문의 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여기서 따질 겨를이 없다.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sup>5)</sup>

끝으로 이중주어 구문이 X Syntax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 (20) a. 나는 돈이 좋다(아쉽다, 지겹다 etc.)  
 b. 돈이 많다. 눈이 곱다, 코가 높다, 손이 크다, etc.  
 c. 살기가 좋다(나쁘다, 쉽다, 어렵다.)

5) 한재현(1981)은  $V \rightarrow \bar{V} V_{aux}$ ,  $\bar{V} \rightarrow V Comp$  등의 규칙으로 이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는 반복현상을 설명하는 때는 좋으나, X Syntax의 phrase structure rules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V \rightarrow \bar{V} V_{aux}$ 는 X Convention에 어긋난다. 그리고 ‘-어’ ‘-고’ 등을 Comp로 보고 그것을 심층에 두는 것도 필자의 생각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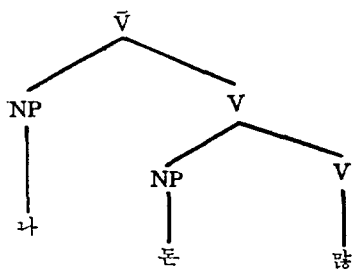


[그림 15]

필자는 일찍부터 예컨대 (20a)에서 '좋다'의 주어는 '돈'이고, '돈이 좋다'가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어 기능을 하는데 그 주어가 '나'가 된다고 기술해 왔다. 이러한 기술은 X Syntax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다.

Phrase structure rule (5) ( $V \rightarrow NP V$ )가 여기에 적용된다. 아니면 Adj를 독립된 범주로 인정하여  $V \rightarrow NP Adj$  또는  $Adj \rightarrow NP Adj$ 로 해도 될 것이다. 앞으로 PS Rule(5)는 이중의 어느 것, 또는 이들 셋을 종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이중주어 구문은 명사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이루는 점에서 이 논문 서두에서 논한 이중목적어 구문 (e.g. '영어를 공부할 하다')과 유사한 deverbilizing rule(사실은 verbalizing rule)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규칙 (5)에 따라 (20a)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NP '돈'에 주격이 붙는 것은 동사 '많다'의 어휘 속성에 의한 것이고, NP '나'가 주격인 것은 '돈이 많다'라는 새 서술어의 어휘적 속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중의 주격이 나타난 것이다. 명사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새 형용사를 이루는 것은 부사가 매우 자연스럽게 그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g. '정말 돈이 좋다, 꽤 돈이 아쉽다, 무척 돈이 많다, 매우 눈이 꼬다, 등등. 심지어는 '매우 부자이다.'와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다.) 그리고 보면 이중목적어 구문이나 이중주어구문은 결국

word formation rules로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얻은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ar{X}$  Syntax를 활용함으로써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문들을 간결하게 분석할 수 있고 많은 부자연스런 변형 규칙들을 없앨 수 있다.

둘째, 한국어 Verb Complement Structures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실마리를 얻었다. 사동문, 피동문, 부정문, 동사보문 등에 대한 좀더 나은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한국어의 case assigner는  $\bar{V}$ 이다. V인 경우도 그것을 지배하는  $\bar{V}$ 가 격을 부여한다고 본다.

넷째, 문장의 통사구조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어휘, 특히 동사의 어휘적 속성에 의하여 결정(또는 투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공부(를)하다’ 등과 ‘돈(이) 많다’ 또는 ‘밟히다’ ‘먹이다’ 등을 Lexicon에 수록하느냐 아니면 어휘잉여규칙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결이다.

앞으로 한국어 phrase structure rules은  $\bar{X}$  Syntax에 의하여 모두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 작업에 이 논문이 기여하기를 감히 기대한다.

#### Bibliography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Holland, Foris Publications.  
 Jackendoff, R. (1977),  *$\bar{X}$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The MIT Press.  
 Park, B.S. (1972), *Complement Structures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ark, B.S. (1981),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6 : 1.  
 Park, B.S. (1982),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Revisited."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pp.645-658.  
 韓載賢(1981), 『생략과 대응 현상——한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문리대영어영문학과 교수